

高句麗寺址를 中心으로 考察한 5世紀前後 佛寺計劃의 變化

金 聖 雨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부교수, Ph.D)

1. 序

우리에게는 몇개의 高句麗 佛教建築遺蹟이 소개되어 있다. 그 유적들 중에 배치계획이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난 경우는 4개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1940년대를 전후하여 日本人 학자들에 의하여 조사보고 되었던 淸岩里寺址와 上五里寺址가 있고 해방후 北韓에서 조사 보고되었던 예로서 定陵寺址와 土城里寺址가 있다. 일제때의 보고자료로서 元五里寺址도 있지만 배치계획이 불확실하여 本稿의 目的에 부합되지 않는다.

이러한 寺址들은 考古學的인 發掘조사에 의한 자료로서 물론 地上의 건축물에 대한 정보는 全無하다. 基壇의 흔적, 낙수물받이 시설, 地盤다지기 시설, 초석 등의 흔적으로 建物の 일부가 추측될 수는 있으나 건축적 추정 복원보다도 여기에서 문제시하려는 것은 배치계획의 변화이다.

건축적인 변화보다는 배치계획의 변화가 더 시대적 상황변화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東아시아 고대 건축의 특성이기도 하거니와 배치계획의 변화는 놀라우리만큼 역동적이다. 우리에게서 흔히 古代의 佛教建築이라고 하면 ○塔○金堂形式이라고 하는 형식상의 명칭으로서 일괄적으로 분류 및 이해해 버리는 경향이 강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자세히 관찰해 보면 같은 형식으로 분류

될 수 있는 사례들 안에서도 모든 寺例들이 똑같은 것이 아니고 서로 다르며 이 차이점들이 일관된 변화의 경향을 지니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볼 때 형식상의 이름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역동적 변화의 내용이 무엇이며 그 변화를 초래하는 이유와 배경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해 진다.

지상에 남아 있는 구조물은 없어도 배치계획만 분명하면 이러한 변화는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다. 本稿는 高句麗의 佛寺址에 관한 자료를 분석하여 이러한 변화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확인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 各寺址의 年代추정을 시도하며 가능한 데까지 그러한 변화의 배경적 이유를 짚어 보려고 한다.

高句麗의 寺址들이 대략 5세기를 전후한 例들로서 추정해 볼 수 있다. 古代 中國의 佛教 및 佛教建築의 상황은 5세기에 이미 대단한 발전을 이룩해 놓았었던 것을 우리는 문헌자료를 통하여 알고 있다. 高句麗가 佛教를 수입하게 되는 것도 北朝의 前秦으로부터이지만 5세기의 中國에서는 南北朝의 各 나라들이 국가가 주도가 되어서 경쟁적으로 佛寺를 세웠었던 때이었으나 당시의 中國寺院은 발굴보고된 바가 전혀 없다. 따라서 高句麗의 寺址의 변화과정과 그 해석은 高句麗뿐 아니라 東아시아의 古代佛教건축의 흐름을 확인하

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된다. 물론 韓半島 內에서의 高句麗 이후 百濟와 新羅의 佛教建築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高句麗의 寺址에 대한 해석이 중요한 기초가 된다.

이 주제에 대하여 筆者는 이미 上五里寺址와 他寺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論議를 제기한 바 있다.¹⁾ 이 논문에서는 上五里寺址와 他寺址들 간의 비교를 통하여 先後關係를 논하는 작업을 시도하였었다. 본 논문은 이 先行研究의 후속작업이자 완결짓는 것으로서 그 의미가 다르다. 지난 번의 논문 이후에 새로운 寺址가 北韓에서 發掘되고 있었던 것도 새로 보완된 시각에서의 정리를 필요로 하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論議의 방법에 있어서도 새로운 시도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 즉 특정 寺址간의 비교를 통한 연구방법 이외에 寺址들 전체를 하나의 계보로 파악하여 모든 사례를 한꺼번에 상호비교의 대상으로 취급한다는 점과 각 寺址들이 갖는 서로 다른 차이점들을 계량화를 포함한 방법으로 객관화시킨다는 점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전체적인 흐름의 윤곽과 함께 年代的 발전이 계보를 확인하는데 보다 효과적이었다고 판단된다.

2. 高句麗의 寺址

高句麗의 寺址에 대하여는 이미 여러가지 문헌 자료를 통해 잘 소개되어 있으나 論議의 전개를 위하여 各寺址에 대한 중요 정보만을 간략하게 소개하기로 한다.

高句麗의 寺址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예는 淸岩里寺址이다. 平壤의 동북쪽 방향으로 3Km정도 떨어진 大同江의 북쪽 언덕에 위치한다. 세계의 金堂으로 추정되는 건물이 中央의 八角塔을 에워싸고 있는 형식으로 보고되었다.²⁾ 塔址의 남쪽에서 門址도 확인되었다.

淸岩里寺址의 寺名과 年代를 확인할 수 있는 根據資料가 발굴현상에서 찾아진 것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高句麗 文咨王(在位 491-516)때 세워진 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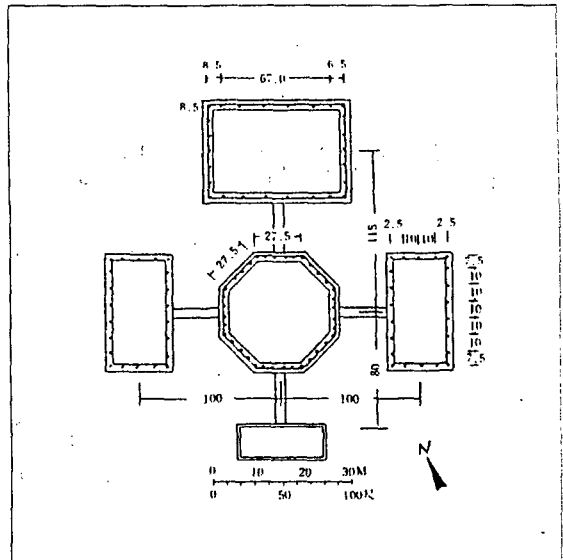


그림 1. 淸岩里寺址(1)

剛寺³⁾일 것이라는 데 의견이 일치한다. 그 이유는 기록상의 이 절의 위치가 淸岩里寺址와 일치한다는 점⁴⁾, 寺址주변에 “金剛”이라는 이름이 남아 있다는 점⁵⁾, 그리고 高麗史의 기록에 肅宗(1095-1105)이 金剛寺를 방문하여 舊塔遺址를 보았다는 점⁶⁾등으로 미루어 볼 때 거의 확실하다고 믿어진다.⁷⁾ 八角塔 基壇의 한 변은 9.5M 정도의 크기이었고 동서건물지는 13×23.5M 정도의 크기이었다. 塔址의 남쪽에 門址도 확인되었다.

2) 小泉顯夫, “平壤淸岩里廢寺址의 調査”, 朝鮮古蹟研究會, 「古蹟調査報告」(京都, 1938) p.14

3) 「三國史記」高句麗文咨王條, “...秋七月創金剛寺”

4) 「東國輿地勝覽」에 金剛寺의 위치를 平壤의 北東쪽 八里라고 기록하였고 이것이 淸岩里寺址와 일치된다. 古典刊行會, 「新增東國輿地勝覽」卷51 平壤條, (서울, 東國文化社, 1958) p.936

5) 韓國佛敎研究院, 「韓國의 寺刹」, 卷17 北韓의 寺刹, (서울, 一志社, 1978) pp.90-91

6) 「高麗史」, 卷11 肅宗條 “...幸金剛寺飯僧, 遂觀舊塔遺址...”

7) 같은 추정을 하는 예로서 齊勝忠, 「古代韓國文化와 日本」孫大後譯 (서울, 圓光大學校出版局, 1981), p.54, 그리고 韓國佛敎研究院 「韓國의 寺刹」, 卷17 北韓의 寺刹, pp.90-91에 나온다.

1) 金聖雨, “高句麗佛敎計劃의 變遷”, 「大韓建築學會論文集」1988年 10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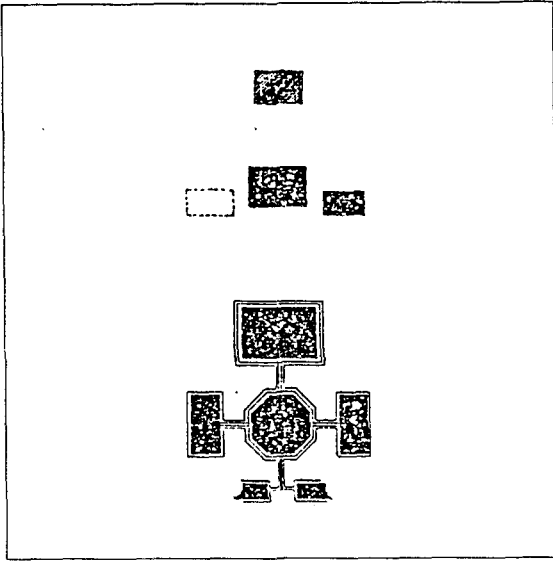


그림 2. 清岩里寺址(2)

塔과 그 주변의 三金堂 주변에서 回廊址가 확인되었다는 報告는 없었으나 회랑이 塔과 金堂을 에워싸고 있었던 것은 틀림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3개의 金堂중 北金堂의 북쪽으로 또 다른 건물지가 확인되었고⁸⁾ 그 사이에 회랑이 지나갈 만한 공간적 거리가 남아 있다.

清岩里寺址와 비슷한 시기에 조사되었던 寺址로서 元五里寺址가 있으나 여기서는 배치계획의 윤곽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여기서는 소개의 의미가 없다.⁹⁾

日本人에 의하여 조사되었던 또하나의 寺址로서 上五里寺址가 있다. 上五里寺址는 清岩里寺址와 같이 정식으로 발굴조사되어 보고된 것이 아니고 1차조사가 진행된 후에 중단되어 조사가 완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추후에 조사과정에서 만들어졌던 도면이 소개되었다.¹⁰⁾

上五里寺址는 平壤의 북동쪽 大同郡 林原면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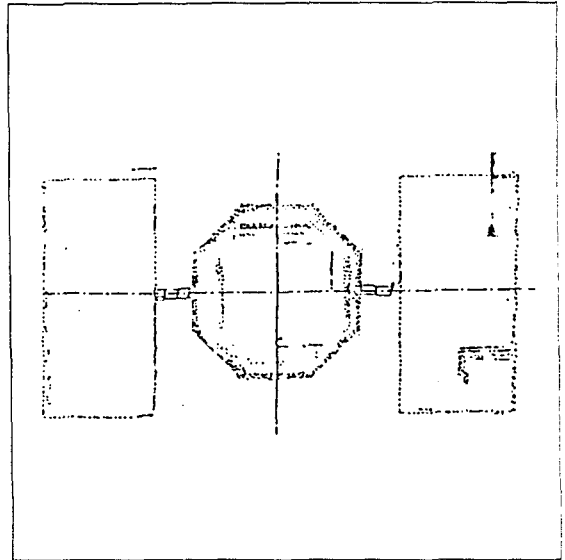


그림 3. 上五里寺址

있으며 清岩里寺址로부터 서북쪽으로 약 2Km정도 떨어져 있다. 寺名과 年代는 확인되지 못하였다. 上五里寺址는 八角塔과 좌우의 東西建物址는 확인되었으나 塔의 북쪽의 건물은 조사가 되지 않아서 그 有無를 알 수 없다. 塔址基壇의 한변은 8M정도이며 東西建物址는 12.6×25.8M의 규모로서 清岩里寺址와 비교할 때 塔은 다소 규모가 작은편이며 東西建物址는 장방형으로 긴 편이다.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塔과 東西建物址의 거리가 가깝다는 것이다. 清岩里寺址가 10M정도인데 비하여 上五里寺址는 4M로서 두배이상 가까운 거리이다.

清岩里와 上五里의 두 寺址가 1940년대 전후에 日人學者들에 의하여 조사되었던 경우인데 비하여 近來에 北韓학자들에 의하여 조사보고된 寺址

8) 이 북쪽의 건물지에 대해서 「古蹟調査報告」(1938)에 기록한 小泉顯夫는 東쪽 건물지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으나 그와 같이 조사했던 米田美代治의 글에서는 세계의 나란히 위치한 건물지와 또 그 북쪽에 또하나의 건물지가 분명히 확인됐다고 적고 있다. 米田美代治, 「韓國上代建築의 研究」 申榮勳譯 (서울, 東山文化社, 1976) p.136

9) 小泉顯夫, 「泥佛出土地元五里廢寺址의 調査」, 朝鮮古蹟研究會, 「古蹟調査報告」(1937) pp.63-72

10) 齊勝忠, 「飛鳥時代寺院의 源流로서의 高句麗寺院의 一形式」, 「日本古代遺蹟研究」(論考編)(東京, 吉川弘文館, 1976) pp.128-137. 이 글보다 먼저 있었던 上五里寺址에 관한 글은 齊勝忠, 「平壤大同郡林原面上五里高句麗建築址의 調査」, 「考古學雜誌」 Vol.30, No.1 (1940年1月) p.81 이것은 잘못된 後記형식의 글이지만 쓰여진 시점이 조사된 시기와 제일 가깝다.

가 두개 있다. 그 하나는 定陵寺址이고 또 하나는 土城里寺址이다.

定陵寺址는 中和郡 眞坡里에 있으며 發掘에 의해 寺址全域의 윤곽이 확인되었다. 중앙의 八角塔址는 다른 寺址와 공통적이며 그 규모도 비슷하다.(바깥변 8.4M 안쪽변 7.3M)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塔의 左右에 東西建物址가 있으나 그것이 다른 寺址와 같이 정확한 대칭을 이루고 있지 않으며 塔의 위치도 中軸線上에서 東쪽으로 치우쳐 있다. 또한 塔과 東西建物지만이 회랑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그 북쪽으로는 또 다른 세개의 건물지가 회랑으로 에워싸여 있다. 그 세개의 건물지중에 좌우의 것은 기둥배치 방식으로 볼 때에 鐘樓와 經樓인 것은 확실한 것으로 판단되며 中央의 건물지는 불확실하지만 配置計劃의 前後관계로 볼 때에 金堂址로 보아야 할 것이다.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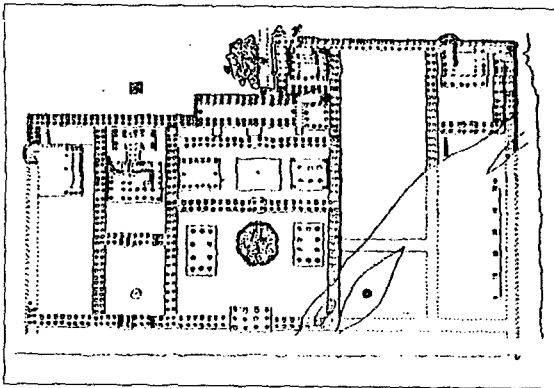


그림 4. 定陵寺址

寺名은 현지에서 찾아진 기와조각에 새겨진 글자로서 확인되었다. 定陵寺의 북쪽에 東明王陵이

11) 定陵寺에 관한 北韓의 기록으로서 가장 종합적인 것은 「東明王陵과 그 부근의 高句麗遺蹟」(平壤, 金日成綜合大學出版社, 1976)이 있으며 이 책은 日本에서 「五世紀の 高句麗文化」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東京, 雄山閣, 昭和60年) 定陵寺에 관한 논문으로서 허철준, “定陵寺의 平面復原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몇가지 고찰”, 「歷史科學」 제4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6) 한인호, “정릉사건축의 평면구성에 대하여” 「역사과학」 2호, 1981이 있다.

있으며 이러한 위치관계등으로 판단할 때 定陵寺가 長壽王(在位 413-497)이 通溝에서 平壤으로 遷都하면서 新都造營과 관련하여 始祖 東明王陵을 滿洲輯安에서 移葬하며 자신의 長壽와 國家의 安泰를 기원하며 東明王陵의 願利의인 性格으로 건립되었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진다. 그렇다면 長壽王의 遷都年代인 427년이 定陵寺의 연대로 받아들여서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즉 5세기 전반의 사찰이며 淸岩里寺址와는 70년 이상의 차이가 생긴다.

가장 최근에 발굴보고된 寺址가 土城里寺址이다. 다른 寺址들이 平壤부근에 위치하지만 이 경우는 평양에서 남쪽으로 떨어진 黃海北道 鳳山郡 土城里에서 찾아졌다. 八角塔 基壇의 규모는 역시 다른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바깥쪽 9.1M, 안쪽 7.7M) 서쪽건물지는 규모가 18×9.1M이며 塔址의 물받이 시설로부터 7.4M 떨어져 있었다. 東쪽의 건물지는 地盤이 攪亂되어 확인되지 않았으나 西쪽 건물지와 대칭으로 있었을 것으로 추정해서 무리가 없을 것이다. 塔의 북쪽에서도 建物址가 확인되었으나 건물의 남측기단부가 확인된 정도이었다. 단지 그 남측 기단과 탑과의 거리가 27.3M(塔中心으로부터의 거리) 떨어진 것이 두드러진다. 물론 年代와 寺名은 확인되지 못하였다.

3. 變化의 分析

이상의 4개의 寺址에서 배치계획이 정확하게 같은 것은 하나도 없다. 이러한 차이점들이 高句麗 佛寺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어렵게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차이들의 해석에 따라서 高句麗 佛寺건축의 변화과정이 설명될 수도 있다.

우선 4寺址 중에서 年代가 확실한 것은 淸岩里寺址와 定陵寺址이다. 定陵寺에서 淸岩里寺址로의 변화는 5세기 전반에서 5세기말까지의 변화과정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上五里寺址와 土城里寺址가 定陵寺址 및 淸岩里寺址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시대적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다음의 과제이다. 그것이 확인된다면 4개의 寺址들이 하나의 일관된 흐름으로서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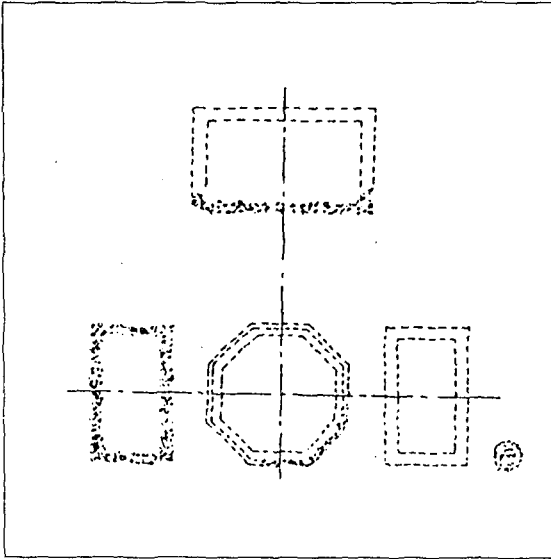


그림 5. 土城里寺址

佛寺의 配置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역시 塔과 金堂이다. 이중에 塔 자체의 기단부에서 찾아지는 생김새의 특성은 4개의 寺址에서 두드러지는 차이점이 찾아지지 않는다. 모두가 8각형이며 발굴된 基壇部의 구성기법이 비슷하다. 규모도 대체적으로 비슷하지만 다소 차이를 보인다. 八角基壇의 바깥쪽 변이 청암리사지가 9.5M, 상오리사지가 8M, 정릉사지가 8.4M, 토성리사지가 9.1M로서 上五里寺址-定陵寺址-土城里寺址-淸岩里寺址의 순서로 조금씩 커지고 있는 점이 두드러진다. 基壇部의 실측시 기준점을 잡는 방식에 따라 차이가 생길 수 있으나 일단 보고서의 수치를 받아들일 때에 증가 경향이 확인된다.

東西金堂에 있어서도 규모를 비교해 보면 상오리사지가 12.6×25.8M, 土城里寺址가 9.1×18M, 淸岩里寺址가 12×21M이다. 定陵寺址는 두개의 東西건물지가 규모가 다르므로 비교의 대상에 포함시키기 쉽지 않으나 그 규모는 東金堂지가 13.4×20.5M, 서금당지가 13.8×22.8M이었다.¹²⁾ 정릉

12) 定陵寺址의 이러한 비대칭적인 현상에 대하여 허철준은 그의 논문 “定陵寺의 平面配置復原과 關聯하여 제기되는 몇가지 考察”이라는 논문 「역사과학」 (1986년 4호) pp.14-18에의 定陵寺가 처음에 한꺼번에 지어진 것이 아니고 두단계에

사를 제외한 세개의 寺址에서 확인되는 것은 東西건물지의 면적이 上五里寺址(325M²)-淸岩里寺址(252M²)-土城里寺址(163M²)의 순서로 작아지고 있다는 것과 長短邊의 比(長邊/短邊)가 上五里寺址(2.0)-土城里寺址(1.97)-淸岩里寺址(1.75)의 순서로 작아진다는 것이다. 즉 東西金堂이 좁고 긴 형태에서 조금씩 정사각형에 가까워지는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 여기에 정릉사의 경우를 포함시켜 보면 면적에 있어서는 東西金堂지 모두 上五里寺址와 淸岩里寺址 사이에 들어오며 長短邊比에 있어서는 청암리사지보다 더 비율이 작다.

塔과 東西金堂과의 거리를 비교해 보면 분명한 차이가 드러난다. 上五里寺址의 경우가 4M이고 定陵寺에서의 東金堂址와의 거리가 5.5M, 西金堂과의 거리는 9.2M, 그리고 토성리사지가 7.4M, 淸岩里寺址가 10M가 된다. 定陵寺址에서 東金堂과의 거리를 취할 경우 上五里寺址-定陵寺址-土城里寺址-淸岩里寺址의 순서가 단계적으로 드러나며 그 증가비율 역시 상당히 규칙적이다.

上五里寺址와 淸岩里寺址를 비교하면 그 거리가 두배 이상의 차이가 생긴다. 만약에 上五里寺址를 淸岩里寺址와 같은 三金堂形式으로 받아들인다면 東西金堂이 塔과 너무 가까이 배치되어 있어서 淸岩里寺址와 같은 공간적 여유를 가지고 北金堂을 배치하기가 곤란하게 된다. 定陵寺의 경우 東西金堂과 塔이 回廊으로 막혀 있는 경우를 볼 때에 上五里寺址도 당연히 塔과 左右의 二金堂만이 회랑으로 에워싸여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경향을 土城里寺址에서도 어느 정도 읽히운다. 즉 東西金堂이 塔과의 관계가 훨씬 더 거리가 가깝게 배치되어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는 반면 北金堂은 더 떨어져 있어서 東西金堂에 비하여 別棟의 건물인 듯한 인상을 준다. 물론 淸岩里寺址에서는 三金堂과 塔이 하나의 전체로서 짜여진 배치를 보여주는데 이것은 上五里寺址로 부터의 이러한 변화

결쳐서 조성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의 주장의 논지에 확실한 수증을 하기는 쉽지 않다.

과정을 거친 결과로서 가능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추정은 北金堂과 回廊의 문제에서도 찾아지며 서로 연관되어 있다. 上五里寺址에서는 北金堂이 확인되지 않았다. 定陵寺址에서는 北金堂이 經鐘樓사이에서 크지 않은 규모로 협소한 공간에 위치해 있다. 土城里寺址에 오면 北金堂이 東西金堂보다도 큰 본격적인 金堂이 되지만 여전히 東西金堂보다도 塔에서의 거리가 떨어져 心理的인 疎遠感을 남긴다. 물론 淸岩里寺址에서는 北金堂이 東西金堂 및 塔과 자연스럽게 一體化된 배치를 형성한다.

이러한 문제는 회랑의 측면에서도 설명된다. 즉 앞에서 예측한대로 上五里寺址는 定陵寺에서와 같이 塔과 東西金堂이 회랑으로 에워싸여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土城里寺址에서는 北金堂과 塔사이의 거리가 떨어져 있는 거리로 볼 때 定陵寺에서와 같이 전통이 이어져서 塔과 北金堂사이로 회랑이 지나가되 北金堂은 定陵寺에서 보다도 더 본격적으로 규모가 확대된 경우로 설명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土城里寺址에서의 北金堂과 塔사이의 거리가 잘 설명되지 않는다. 이러한 추정이 맞다면 三金堂과 塔이 하나의 회랑으로서 둘러싸인 경우는 淸岩里寺址가 처음이라는 결론이 된다. 이것은 회랑부분이 확실히 발굴되기 전에는 확인되기 어려운 하나의 가설이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塔과 金堂의 배치관계로 볼 때 충분히 타당성을 갖는 가설이라고 생각된다.

이상의 분석에서 상당히 뚜렷한 변화의 경향을 읽을 수 있다. 우선 塔의 확대경향은 上五里寺址-定陵寺址-土城里寺址-淸岩里寺址의 순서로 고정되며 이것은 塔과 東西金堂사이의 거리확대의 순서와 일치한다. 동시에 이 순서는 北金堂의 규모확대의 순서와 일치하고 또 東西金堂의 규모축소 및 長短邊比例와도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이러한 변화경향은 우연한 것이라고만 보아 버릴 수는 없는 것이며 변화의 이유와 방향이 분명한 하나의 과정적 흐름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분석의 결과는 각 寺址들의

年代的 추정을 쉽게 한다. 定陵寺가 427년경이라면 上五里寺址는 定陵寺보다 빠른 例로서 5세기 초엽이거나 또는 4세기 末경까지도 올려 잡을 수 있는 경우일지 모른다. 대략 400년을 전후한 作品으로 보아서 크게 틀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 보게 된다. 한편 土城里寺址는 定陵寺와 淸岩里寺址의 중간에 해당하는 것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5세기 중엽내지 후반의 作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년대의 추정이 틀릴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로 보건대는 놀라우리만큼 변화경향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러한 年代적 변화과정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의 경향이 왜 생기게 되었겠는가 하는 것이 다음의 과제가 된다. 이 문제는 변화과정의 분석보다도 더 주관적인 해석을 가미해야 한다는 점에서 더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지만 동시에 더 의미있는 작업이기도 하다.

4. 變化의 解析(結)

塔의 규모가 확대된다는 사실은 아마도 가장 중심적인 변화 내용으로 꼽혀야 할 지 모른다. 그것은 당시의 佛寺의 개념이 塔위주의 寺院이었음을 감안할 때 塔의 종교적 상징성과 그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일로에 있었다고 해석되어야 할 것 같다. 古代佛教建築이 塔寺로서 시작되어 오는동안 塔만이 유일한 中心回廊內의 구조물이었던 것을 우리는 文獻을 통해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¹³⁾

上五里寺址에 東西金堂이 塔의 左右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그 이전의 塔唯一의 배치계획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이었다. 이 東西金堂의 포함은 당시의 宮闕建築에서 유행하였던 中心正殿 左右

13) 여기에 관해서는 金聖雨, 「東아시아 佛寺의 最初形式」 「大韓建築學會論文集」(서울, 大韓建築學會, 1987年6月)에서 論하였으며 더 자세하게는 Kim, Sung-woo 「History and Design of the Early Buddhist Architecture in Korea」(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1985) pp.8-59에서 다루었다.

의 東西堂의 영향으로서 가능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며¹⁴⁾ 東西金堂의 필요성은 당시의 大乘佛敎의 敎理에 따른 다양한 佛像들의 安置를 위한 공간적 수요에 의한 것이었을 것이다.

東西金堂의 도입은 불가피하게 塔左右의 공간을 점유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塔이 차지하게 되는 공간영역의 침범일 수도 있다. 그러한 상황이 塔만이 혼자 넓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을 때에 비해서 塔의 규모와 공간적 여건을 축소시키는 쪽으로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塔이 上五里寺址에서 淸岩里寺址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확대되는 것은 아직은 塔의 唯一的 中心性이 흔들리지 않고 있었다는 증거이며 5세기까지는 塔의 비중이 축소되기보다는 확대되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우리는 이러한 塔中心의 構圖가 6세기부터는 反轉되어 塔의 규모가 축소되기 시작하고 回廊內의 中心的 위치에서 밀려나게 되는 것을 알고 있다.¹⁵⁾ 이렇게 보면 5세기까지 上昇一路에 있던 塔의 위치가 5세기末과 6세기초를 전후하여 下向하기 시작하는 과정으로 이해되며 아마도 淸岩里寺址는 이러한 塔의 변화곡선의 분수령에 위치했던 경우이었을 것으로 상상된다.

그러나 6세기에 가서 塔中心의 경향이 反轉될 수 있었던 것은 5세기에 이미 東西 및 北金堂의 도입에 의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東西金堂은 도입된 후 바로 그 규모가 축소되어 간다. 東西金堂 규모축소는 6세기 이후에 東西金堂 자체가 소멸되어 버리는 것을 볼 때 쉽게 이해가 되는 현상이다.¹⁶⁾ 반면에 北金堂은 定陵寺에서와 같이 미약하게 출발하였다가 土城里寺址에서와 같이 규모가 확대되었어도 여전히 회랑밖에 위치해 있었다. 그러나 청암리사지에 와서는 회랑내에 포함되 제일 중심적이고 규모가 큰 금당으로 자리잡는다. 6세기에 가면 이 北金堂이 유일한 금당이 되어 塔과 대등한 위치에까지 비중이 커지다가 6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塔보다 더 우위를 점하게 된다. 이러한 北金堂中心 체제로의 변화 역시 5세기에서의 定陵寺에서 土城里

寺址에로, 그리고 淸岩里寺址에 이르는 과정에서 변화가 준비되었던 결과이고 이러한 변화과정이 6세기의 변화까지 예고할 수 있게 해준다.

淸岩里寺址는 지금까지 알려져왔듯이 高句麗寺院의 하나의 전형처럼 이해되어지기보다 高句麗寺院의 긴 변화과정을 거쳐 도달된 5세기말의 발전단계이었고 定陵寺와 土城里寺址는 그 과정을 매꾸어주는 사례이라면 上五里寺址는 高句麗寺院의 출발점에 해당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물론 上五里寺址 이전에 中國에서는 塔을 회랑이 에워싸는 형식이 있었으며 또한 高句麗이후의 韓半島에서는 淸岩里寺址이후의 변화가 이어진다.

이렇듯 高句麗의 寺址들은 그 변화의 세부적 내용으로 볼 때에는 구조체의 규모나 위치, 그리고 서로간의 간격에 따라서 변화의 순서를 읽을 수 있으나 그러한 변화과정은 전체적인 古代佛敎建築의 自己變化科程의 한 부분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 변화의 주된 동기는 인도佛敎의 舍利신 양구도로서의 상징적 위치가 유지되는 과정과 거기에 반해서 새롭게 등장하는 佛像승배구도의 佛殿의 위치가 상층적으로 작용하는 역동적 함수관계의 변화로 임히워야 하는 것이다. 高句麗寺址들은 塔의 상징적 위치가 우선적으로 확보되는 마지막 단계로 보아야 한다. 上五里寺址, 定陵寺址, 土城里寺址, 그리고 淸岩里寺址는 비록 제한된 발굴정보만을 갖고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이러한 역동적 변화의 동기와 배경에 의해 드러나게 된 흐름가운데 5세기를 전후하여 나타나는 과정적 현상이었던 것이다.

15) 金聖雨, “三金堂形式의 展開” 「大韓建築學會論文集」(1990年2月) 및 金聖雨, “一塔一金堂形式의 發展” 「大韓建築學會論文集」(1989年12月) 참조

16) 東西金堂의 소멸은 百濟의 寺址를 특히 扶餘의 寺址들에서 바로 확인이 되며 東西金堂의 소멸이 바로 一金堂形式의 탄생으로 이어진다. 이 관계는 金聖雨, “三金堂形式의 展開” 「大韓建築學會論文集」(1990年2月)에서 자세히論하였다.

14) 金聖雨, “三金堂形式의 起源”, 「大韓建築學會論文集」(1988年2月)

참고 문헌

1. 金聖雨, “高句麗佛寺計劃의 變遷”, 「大韓建築學會論文集」, 1988年 10月.
2. 小泉顯夫, “平壤清岩里廢寺址の調査”, 朝鮮古蹟研究會, 「古蹟調査報告」, 京都, 1938.
3. 「三國史記」高句麗文咨王條.
4. 古典刊行會, 「新增東國輿地勝覽」卷51 平壤條, 서울, 東國文化社, 1958
5. 韓國佛教研究院, 「韓國의 寺刹, 卷17 北韓의 寺刹」, 서울, 一志社, 1978
6. 「高麗史」, 卷11.
7. 齊勝忠, 「古代韓國文化와 日本」孫大後譯, 서울, 圓光大學校出版局, 1981
8. 韓國佛教研究院, 「韓國의 寺刹, 卷17 北韓의 寺刹」
9. 米田美代治, 「韓國上代建築의 研究」, 申榮勳譯, 서울, 東山文化社, 1976.
10. 小泉顯夫, “泥佛出土地元五里廢寺址の調査”,
11. 朝鮮古蹟研究會, 「古蹟調査報告」, 1937
12. 齊勝忠, “飛鳥時代寺院의 源流로서의 高句麗寺院의 一形式”, 「日本古代遺蹟研究」, 論考編, 東京, 吉川弘文館, 1976.
13. 齊勝忠, “平壤大同郡林原面上五里高句麗建築址の調査”, 「考古學雜誌」, 1940年 1月
14. 「東明王陵과 그 부근의 高句麗遺蹟」, 平壤, 金日成綜合大學出版社, 1976
15. 「五世紀의 高句麗文化」, 東京, 雄山閣, 昭和60年
16. 허철준, “定陵寺의 平面復原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몇가지 고찰”, 「歷史科學」 제4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6
17. 한인호, “정릉사건축의 평면구성에 대하여” 「역사과학」 2호, 1981
18. 金聖雨, “東아시아 佛寺의 最初形式” 「大韓建築學會論文集」, 서울, 大韓建築學會, 1987年6月
19. Kim, Sung-woo 「History and Design of the Early Buddhist Architecture in Korea」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1985
20. 金聖雨, “三金堂形式의 起源”, 「大韓建築學會論文集」, 1988年2月
21. 金聖雨, “三金堂形式의 展開”, 「大韓建築學會論文集」, 1990年2月
22. 金聖雨, “一塔一金堂形式의 發展” 「大韓建築學會論文集」, 1989年12月

The Change of Site Pattern of Buddhist Architecture of Koguryo

Kim, Sung Woo
(Yonsei University, Professor)

Abstract

A few archeological excavation of Buddhist temple sites of Koguryo were reported with information of site arrangement. The interpretation of such information is very important not only for the explanation of Korea early Buddhist architecture but also for the development of East Asian cases in general since no archeological evidences of the same period were found in other countries such as China. Though the investigation of the four temple sites this paper attempt to identify their date of construction and the process of change. The study depended much on comparative studies of the change of site elements such as pagoda, image hall, corridor, and other buildings. The study could conclude that the site of SangO-Ri must be the earliest case which was followed by ChungRung-Sa, which was built in around 427AD. The site of ToSung-Ri was the case which was the work of the late 5th century. Such process of the development of Buddhist architecture in Koguryo unveils the fact that the process of change was a continuous flow toward a consistent goal of change that had much to do with the contemporary religious situation.